



오늘의 말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4~5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특집 | 6-7 | 청년부 수련회 | 10 | 광야의교회 소식 / 사랑의 모자 |
| 3 |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 8 | 사랑나무 | 11 | 십자말씀이 |
| 4-5 | 필리핀 단기선교 | 9 | 성경문해력 / 교회공사 | 12 | 여전도회 연합예배 |

소망

나태주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주고 나서 이내 잊어버리고
무엇을 또 주어야 하나
찾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꽃을 보고서도 저것을 가져다
주었으면 하고
구름을 만나서도 저것을 데려다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뒤에 웃고 있는 네가
있음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거기 너 그렇게
웃고만 있거라
예뻐 있거라.

주는 마음 속에서 빛나는 것

소망은 손으로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는 손길 속에서 피어납니다.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좋은 마음이라는 시인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하라 속삭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대로 흐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복은 흘려보낼 때에 더욱 빛이 납니다.

꽃을 보아도 ‘가져야 한다’기보다 ‘주었으면’ 하고,
구름을 보아도 ‘붙잡기보다’함께 ‘나누려는’ 마음.
그 마음은 계산하지 않고, 잊어버린 듯 또다시 주기를 반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마음을 닮은 태도입니다.

“그 마음 뒤에 웃고 있는 네가 있음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주는 삶 뒤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작은 응원 한마디, 짧은 중보의 시간, 적어도 나누는 손길 속에 소망은 자랍니다.
내게 머무를 때 오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다시 흘러 내어보내주는 데서 오는 기쁨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소망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사랑 안에 이미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징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가정(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요14:1)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믿음의 위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던 이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장차 닥칠 고난과 불확실함 속에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시험과 어려움이 집 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 자녀 교육,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가정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숙하게 됩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특징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할 때 가정은 소망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는 가정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등불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며 시험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가정) 시험의 때에는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오지만 믿음의 가정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말로 힘을 북돋을 때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정은 세상 속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가정) 시험과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공동체가 단단해집니다. 고난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위한 실천 방안

(가정 기도의 자리 지키기)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가정의 기도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 근심은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세우기)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점검하는 습관은 믿음의 가정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어려운 상황에 맞는 성구를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실천하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가정은 시험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가족끼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나누는 습관은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고 믿음을 키워줍니다. 감사는 근심을 몰아내고 기쁨을 불러옵니다.

(공동체와 연결되기) 믿음의 가정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며 서로를 섬길 때, 가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위로와 격려는 시험을 이길 큰 힘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믿음을 훈련하기) 어려움의 때에 자녀를 보호하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줄 때, 자녀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 이어질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결론: 시험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가정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그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글함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_ 요한복음 14:1

2025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작은 겨자씨, 큰 나무를 이루는 부르심

2학기 겨자씨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말씀으로 모으고, 다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단순히 모임을 재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발간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목회데이터연구소, 2025)에 따르면, 교회의 부흥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소그룹 활성화’를 언급하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의 78%는 “소그룹이 활발하다”고 응답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33%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모임의 유무보다,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가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에서 전해진 말씀은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겨자씨 인도자들이 단지 모임을 운영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재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결국 **사람을 세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과 더불어, 제자들을 택하여 함께 거하며 훈련시키시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세상적 조건으로 보자면 불품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인도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자격

성경은 교회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말합니다.

첫째, **신앙적 영역**입니다. 리더는 신앙에서 책망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충실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새신자를 리더로 세우지 않는 이유도 교만에 빠질 위험 때문입니다. 리더는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 신앙적 간증이 뚜렷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영역**입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돈과 술 등 세상적 취미에 집착하지 않는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하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가정적 영역**입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는 말씀처럼, 가정에서 신뢰받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가정이야말로 신앙의 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 모임이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의 모범은 더욱 중요합니다.

겨자씨 공동체의 사명

주님의교회가 구역이라는 기존 명칭을 ‘겨자씨’라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쉼터가 되듯, 소수가 모이는 작은 겨자씨 모임일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질 때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겨자씨 인도자는 단순히 소그룹의 리더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큰 나무로 자라도록 섬기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 안팎, 가정과 공동체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삶을 살고 있는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가려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라나 열매 맺기를

작은 순종이 큰 나무를 이룹니다. 겨자씨 인도자로서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맡겨진 자리를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갑시다. 가정과 일터,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글함글



비전트립
필리핀

피나투보의 상처 위에 세워진 소망의 교회들

대한민국이 찢는듯한 더위로 신음했던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저는 필리핀(Philippines) 앙헬레스(Angeles)로 비전트립(Vision Trip)을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14명의 비전트립 팀원은 하나님께서 유성훈 선교사님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동참하여 필리핀 성도님들과 함께 현지어(Tagalog)와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성훈 선교사님에게 사명과 지혜를 주셔서 크게 3가지의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1991년 6월 피나투보(Pinatubo) 화산의 대폭발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딜라딜라(Diladila) 마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의 성도님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성훈 선교사님에게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현지인 짐(Jim) 목사님을 동역자로 주셨고, 두 분은 함께 딜라딜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역시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타(Aeta) 마을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산에 살았던 원주민으로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성훈 선교사님과 현지인 알(Al) 목사님을 통해 이들에게 먹을 음식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코피노(Kopino)와 어린 나이에 필리핀에 유학 와서 방황하고 있는 1020 한국인 청년들을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성훈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피노에게는 전기 기술을 교육하고 계셨고,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위해 커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비전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목격한 것은 저에게 큰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성훈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현장은 ‘왜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빈곤한 삶을 살고, 누군가는 차고 넘칠 만큼의 부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저에게 하

나의 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불균형을 아주 조금씩 개선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저의 시각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아이타 마을의 성도님이 오래 굶주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음식 외에는 욕심을 내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저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성도님의 행동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트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유성훈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육개장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장사가 전혀 안 되었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빚을 내서 버텼습니다. 직원들이 직장을 잃으면 이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손해 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이번 필리핀 비전트립은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욱 목사

비전트립
필리핀

함께 나누는 은혜

마음을 낮추고 함께 손 잡아주는 것

추미선 집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것

김태선 / 초등학교생

나의 좁은 마음과 시야를 확장시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진연미 집사 / 해외선교부 3V국 팀장

선교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태욱 목사

선교란 더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버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양봉욱 집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하시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해 집사

나에게 선교란?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나누며,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최은희 집사 / 해외선교부

선교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황은지 자매

필리핀은 두번 울게 되는 나라다. 떠나기전 무서워서 울고 돌아올 땐 정들어서 서운하다고 운다. 매력이 넘치는 필리핀~~~ 무섭다면서 자꾸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 비전트립 다녀오면 해답이 나온다.

신민숙 집사 / 해외선교부 2V국 팀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 삶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양은우 / 중등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며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양신우 / 중등부

비전트립
필리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현장

올해 비전트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7월 23일 ~ 28일(4박6일) 일정을 위해 선교사님과 소통하며 14명의 팀원들과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동안 주신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필리핀 앙헬레스 현지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식료품 나눔을 위해 방문한 딜라딜라 난민(빈민)촌 가정들은 환경이 열악해 보여 마음이 아팠지만 해맑은 미소의 어린이들이 우리를 반겨주니 참 고맙았습니다. 다음날 이주해야 할 터에 가서 땅밭기를 하며 기도하는 시간, 딜라딜라교회에서 구슬을 꿰고, 비닐백에 색칠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활동시간, 특히 프레이즈팀이 악기를 연주하며 ‘Nothing is Impossible’ 따갈로그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양은우, 양신우 학생, 양봉옥선생님과 이경해집사님, 추미선집사님, 황은지, 박주안자매의 신나는 연주와 찬양을 통해 현지교회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목소리 높여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를 외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였습니다. 현지 교회 청(소)년 워십댄스팀의 댄스를 통해, 집 목사님과 로즈 사모님, 교회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딜라딜라교회와 여러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섬기시며 전방위적으로 사역하시며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시는 유성훈 선교사님과 이경사모님을 통해, 주님의교회를 통해 계속 흘러가는 축복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의 기쁜 모습을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높은 강물 수위로 방문은 못했지만 우기철 굶주림에 처해 있는 아이따마을 깔라삐교회의 알목사님과 성도들을 피약별 아래에서 만나 성미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다음 방문을 기약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역들과 현지 코피노형제들과 한인청년들로 사역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가운데 치열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유성훈 선교사님과 이경 사모님, 태욱, 형욱군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으로 눈으로 보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을 순종의 섬김으로 함께 보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13명의 귀한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지선 집사 / 해외선교위원회



청년부
2025 여름수련회

이번 수련회 주제는 Direct Messenger: Influencer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을 목표로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 ~ 17일까지 2박3일동안 강원도 원주 로템 힐링타운 및 주님의교회에서 청년 150여명이 참석하여 수련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목회자분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전공 김태섭 교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날에는 선교학을 전공하신 황인성 목사님을 모시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목사님의 삶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서진교 목사님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옆에서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 처럼 생동감 있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가자고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김태섭 교수님의 요셉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그곳이 하나님나라임을 깨닫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셋째날에는 '케어코너즈'팀을 초청하여 영화 예배를 드리며 영화 속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케어코너즈' 대표 목사님이신 이보람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로 조별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정지명 전도사 / 청년부

청년부
2025 여름수련회

형통의 의미를 다시 배우다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신가요?” 매일 애쓰며 살아왔던 내 삶을 떠올리며,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_ 창 39:2a

우리의 형통은 목표한 일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므로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초청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연휴를 내어 수련회에 온 것도, 대학생들이 방학을 내어 수련회에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20~25살 비전힐 청년들이 이 수련회에 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정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련회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비전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아... 내가 이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던 게 언제더라?’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셀 모임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습관처럼 기도하면서도 진정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의 기도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며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막연히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하며 미뤄두고 눈앞의 일들에 몰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구하느라 사명을 잊고 지냈던 순간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셉이 고난이 시간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그렇기에 요셉에게는 모든 순간이 형통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사명 역시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였고,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하였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박희성 / 청년부 27기



청년부
2025 여름수련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형통의 비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_ 창세기 39:2

수련회 첫째 날 집회시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살며 누명을 뒤집어 써 감옥까지 간 요셉이다. 누가봐도 형통하지 않은 삶인데 성경에서는 이를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일까.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의 꿈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셨다. 당장 요셉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은 전혀 형통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으로써는 필요한 일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런 각종 억울한 사건들을 겪는 삶도 형통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은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 내 삶에는 우울증이라는 고난이 있다. 이것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만큼, 우울증이 끝나고 삶에 대해 감사하게 될 날이 올까. 그 날이 온다면 나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얼마만인가. 그래도 수련회에 참여하여 이런저런 나눔을 하며, 머릿속에 안개가 조금은 걷힌 느낌이 난다. 오랜만에 마음을 담은 기도도 길게 할 수 있었고, 나의 고난을 나눌 사람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지도 생각해보았다.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오래 간직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나와 함께해준 모든 지체들에게도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서영재 / 청년부 27기



청년부
2025 여름수련회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2025년 여름,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며 청년부는 수련회 준비에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역팀, 조장, 공동체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스태프는 사전 모임들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공동체 프로그램 스태프로서 그리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기대를 가지고 현재 나의 상황을 정리하며 수련회에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기도제목을 하나씩 적어보았습니다. 막학을 앞두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이번 수련회 주제인 "Influencer"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첫날이 다가왔고 첫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녁 집회 이후 개인 기도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터놓기 힘든 이야기

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둘째날, 한달간 준비해온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했고 이후 저녁집회 때 다같이 찬양하며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이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며 아직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은 남아있지만 제 삶의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2박 3일의 청년부 수련회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잊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가끔하던 QT를 이제 매일하려고 합니다. 시나브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뜻깊은 수련회였습니다.

이현준 / 청년부 31기

사랑나무
아쿠아리움 방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바다 여행

여름을 보내기 직전 8월 31일 우리는 ‘아기다리고기다리던’코엑스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였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명서와 성원이를 비롯하여 사랑나무 친구들 12명 전원이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포함하여 50명이 함께 움직였으니 그 규모는 감히 출애굽을 떠올리는 장관이었습니다. 또한 해저터널을 지날 때는 흥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 놀라웠고 항상 휠체어에 누워 위만 바라봐야 하는 명서에게는 하늘 위로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커다란 가자미가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나무 예배는 늘 은혜가 넘치지만 가끔 외부로 나가 행사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같은 시간에 미리 답사를 해보니 주말에는 특히 일요일 점심 즈음에는 인파가 넘치고 외국 관광객들의 단체관람이 많아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체관람객은 사랑나무뿐이라서 비교적 쾌적하게 관람하였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인어공주 쇼도 모두 자리를 잡아 함께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나무 친구들뿐 아니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보며 이렇게 다 함께 바람 쐬려 나와야겠다 마음을 먹어봅니다. 관람을 마치기 전 기념품 코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작은 선물을 하나씩 챙겨줬는데 늘 묻는 말에만 겨우 무뚝뚝하게 대답만 하던 한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받은 선물을 사진으로 찍어 제게 토크로 보내옵니다. “이쁘네, 마음에 들어?” 물어보니 “네”라고 짹짹하게 대답합니다. 그 짹짹한 한마디에 담긴 속 깊은 마음과 긴 사연을 알기에 순간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_마태복음 25:40b

엄인호 안수집사 / 사랑나무



사랑나무
기도회

기도 가운데 피어난 무지개빛 사랑나무 꽃들

8월 3일,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사랑나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살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도회는 기본이 2시간이라는 배운환 목사님의 엄포(?)로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왕의 자리, 세상이 모두 허락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엎드려 회개하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였다는 말씀을 들으며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사랑나무 예배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앞에서 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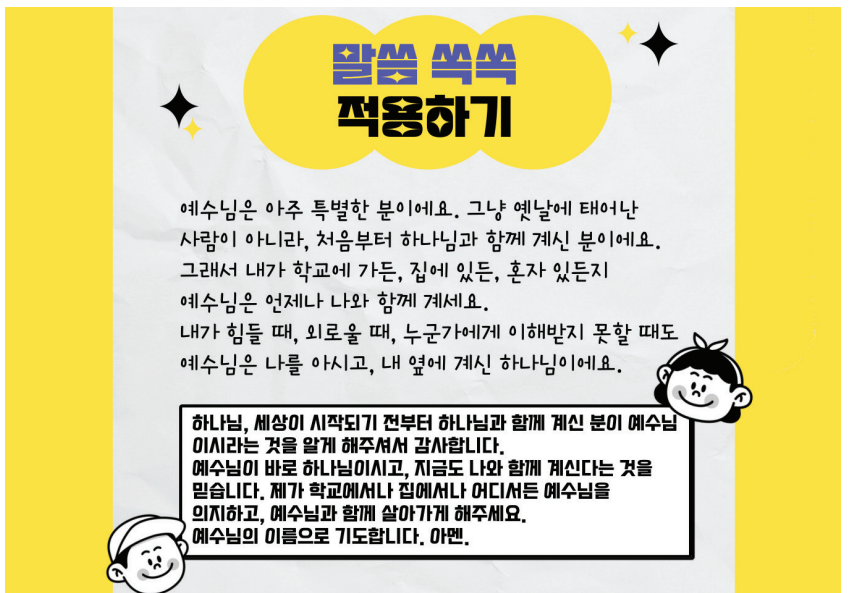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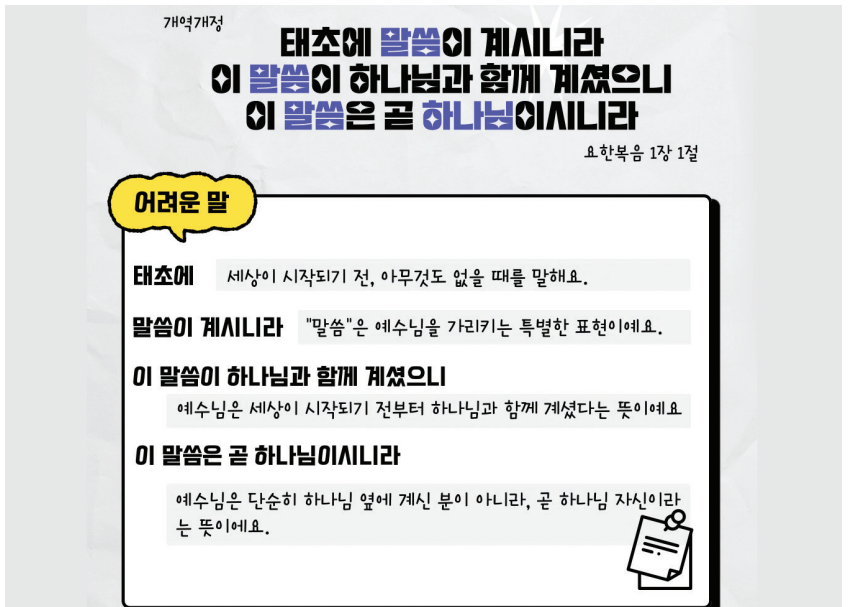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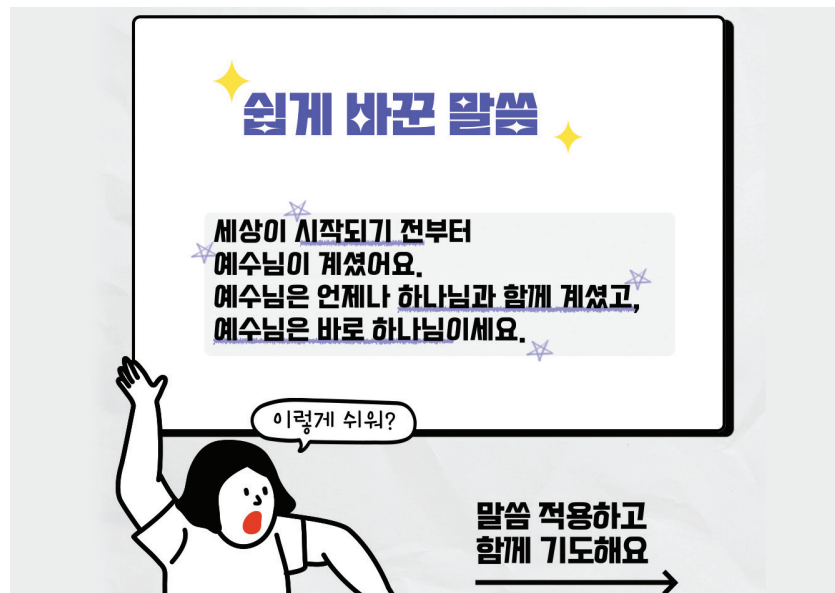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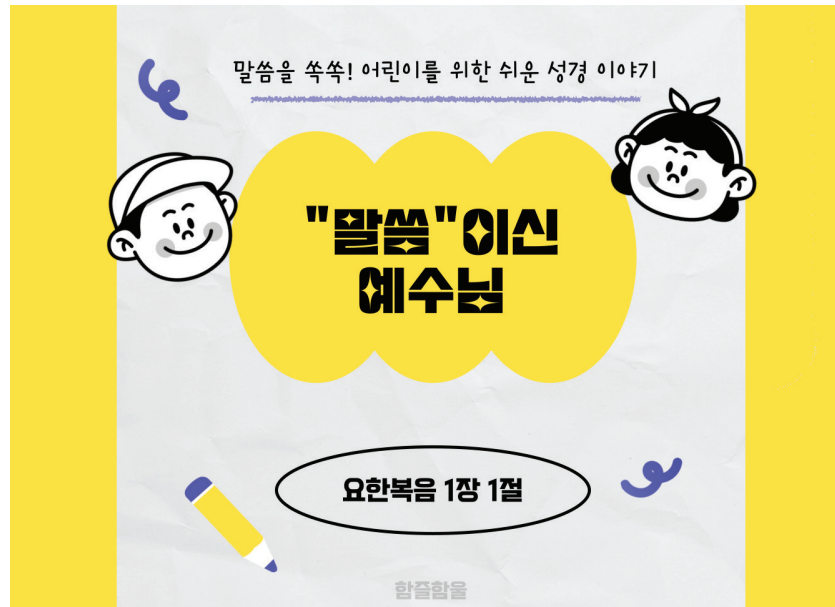
을 토해내는 기도 가운데 ‘완전해짐’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다윗을 바라보듯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각자가 가진 아픔, 괴로움, 걱정, 탄식들이 기도를 통해 기쁨으로 변화됨을 체험합니다. 말뿐이었던 용서와 이해가 맞잡은 두 손을 통해 흘러감을 느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 가운데 밑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더욱 사랑하게 되니 곱디 고운 사랑나무 식구들이 활짝 핀 꽃처럼 보입니다.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로 빛나는 예쁜 꽃들이 사랑나무실에 활짝 피었습니다.

최정은 집사 / 사랑나무



어린이 함께함
성경문해력



교회소식
교회공사

새로워진 공간, 더 깊은 예배와 교제로

정신학교와 교회의 하기 방학 기간 동안 약 6주간 진행된 대대적인 교회 공사가 8월 넷째 주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중예배실 리모델링 ▲주방 바닥 타일 교체 ▲냉난방기 설치 ▲대예배실 음향개선 등이며, 전 층 바닥 왁싱 청소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교회가 공사장처럼 복잡했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위험한 공정에서도 사고 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예배실 리모델링

건축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장 조명을 전면 교체하고 오래된 바닥재를 새로 시공했으며, 장의자를 조정하여 통로를 확보하고 가죽 커버도 교체했습니다. 또한 신부대기실 겸 대회의실의 실을 새로 마련해 혼례 예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고장난 빔스크린 교체와 강단 장식 정비로 예배와 예식에 적합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단장했습니다.

주방 바닥 타일 교체

찢어지고 일어난 바닥재로 위험했던 주방을 전면 철거 후 석재 타일로 교체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등 일부 설비를 새로 들고 가스관 배치를 정리했으며, 조명을 방습등으로 교체해 봉사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정신학교가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학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으로 교회 건물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중예배실, 소예배실, 대식당, 수련실 16개, 소년부실, 대회의실 등 여러 공간이 새로워졌으며, 중앙통제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예배실 음향개선

좌석 위치에 따라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기존 장비를 점검하고 단상 위에 소형 스피커 4대를 추가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성도 전반이 고르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몇몇 성도님들이 재능과 물질을 기부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로 교회 전반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며 시설과 물품을 잘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계·감리와 각 공사에 헌신하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기도로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수고해 주신 주방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병운 안수집사 / 사무국장

광야의교회
창립 14주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교회 사역 6년차 때였습니다. 예배 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도 낯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당회로부터 광야의교회(당시 J주님의교회)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던 중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계획된 선교지에서의 두 달의 안식월을 떠나기 전, 인사를 드리러 광야의교회에 왔습니다. 남아 있었던 성도는 아이들 포함 스무여 명 정도였는데 그중 반 정도는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하게 된 상가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 교회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열악한 교회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의 시간은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교회에 부임한지 벌써 8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 전 이곳 북위례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교회이전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의 생생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가교회인 저희에게 하나님은 여러 명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양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고, 저희 스스로 걸음마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 땀이 있었

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더불어 모 교회인 주님의교회가 있었기에 광야의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4년동안 한결같은 보살핌으로 양육시켜주신 주님의교회에 대한 사랑의 빛은 결코 잊을 수 없고, 이제는 광야의교회도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임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꾸준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겐 너무나 큰 사랑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교회라는 큰 울타리와 같은 교회를 떠나 작고 연약한 교회로 와서 지난 수년간 함께 했던,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역초기부터,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광야의교회가 북위례에 있어서 성도들도 좋지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인해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의 목회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때, 형제교회인 주님의교회와 길가에교회가 함께 연합하며, 교회의 공공회성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나라를 위해 나아가길 바라며,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며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창진 목사 / 광야의교회



호스피스부
사랑의 모자 기부 소식

사랑의 실 한 올, 희망의 모자 113개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에서 2024년부터 호스피스 환우분들에게 드릴 모자를 손뜨개로 정성을 다해 모자를 만들어 전달해 드렸다. 국립 암센터, 독일 호스피스센터 주님의교회 사랑나무등에 전달을 하였고 겨울에는 겨울 모자와 워머를 만들어 샘물 호스피스에 전달을 하였고 2025년에 모자뜨기 봉사로 완성한 모자 중 "어름용 모자"를 필요한 분들과 호스피스 병동에 전달하였다.

최영미 봉사자(마리안나 병원 호스피스봉사 팀장)는 어름용 모자 113개를 두 개 병원에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다. 7월 2일에 아주대학교 경기지역 암센터에 모자 35개를, 7월 3일에 성빈센트 병원에 1차로 모자 40개와 8월19일에 2차로 38개를 전달하였다.

모자를 전달받은 아주대학병원과 성빈센트병원 홍보팀에서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와 모자뜨기 봉사에 관심을 갖고 병원 홍보 책자에 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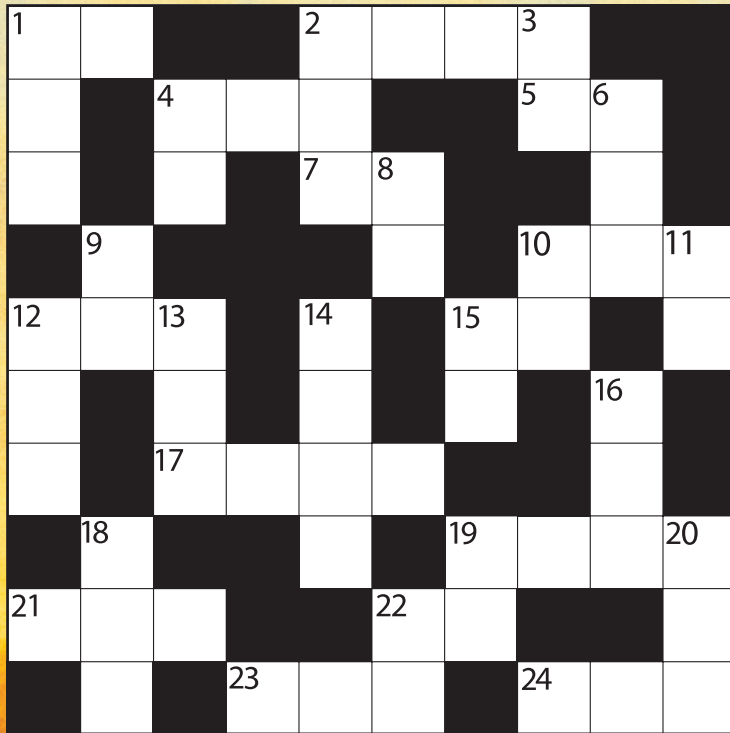
싶다고 하였다. 정성과 헌신으로 모자뜨기 봉사를 해주신 김정애권사와 또한 환우들이 사랑의 모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주신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호스피스부에서는 앞으로 겨울용 모자 뜨기도 시작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스피스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로마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여섯 번째 권인 <로마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서기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사도행전 편 정답



가로 힌트

- 법률이나 규정에 들어 있는 각각의 내용. 보통 숫자나 기호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롬 2:27)
-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구약 시대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을 맺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롬 3:30)
- 권력을 누리는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능력, 또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롬 8:38)
- 하나님과 대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롬 1:9)
-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는 것. 대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 (롬 14:16)
- 죽음에 임할지라도, 죽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도. (롬 14:8)
- 구약시대의 선지자.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뜻이다. (롬 9:27)
- 속게 함. 거짓을 사실로 알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롬 3:13)
- ‘인자함’을 높이 부르는 말.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롬 2:4)
- 로마 교회의 사역자.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로마 황실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롬 16:9)
- 어떤 사람의 자식으로 입양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음을 뜻한다. (롬 9:4)
-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 때로는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응되는 지상의 세계를 뜻하기도 한다. (롬 11:12)
- 깨끗하지 않음. 순수하지 않음을 뜻하는 명사형 단어이다. (롬 1:24)
- 고상하지 않게. 성경에서 이 말은 주로 ‘세속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롬 14:14)

세로 힌트

-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뜻한다. (롬 1:25)
- 자비가 없음. 인정머리가 없고 모진 것을 뜻한다. (롬 1:31)
- 본인을 스스로 부르는 말. 백토로 빚고 고온으로 구워 단단하게 만든 그릇을 뜻하기도 한다. (롬 4:19)
-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대개 공적인 일의 담당자에게 부여된다. (롬 9:21)
- 오히려. 문맥이나 예상과는 달리. (롬 3:31)
- 생활이 건전하지 않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삶을 뜻한다. (롬 13:13)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존재. 성화에서는 대개 날개가 있으며 인간과 유사한 형상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롬 8:38)
- 죽음을 당함. 피살됨. (롬 7:4)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로도 쓰인다. (롬 13:9)
- 표면적의 반대말. 어떤 것의 속에 들어 있는 것이나 상황을 뜻한다. (롬 2:29)
- 문명인의 반대말.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생활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롬 1:14)
- 그렇게 하면의 줄임말. ‘그렇다고 하면의 뜻으로도 쓰인다. (롬 3:6)
- 대가를 주고 속박에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 값을 치러서 죄인이나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롬 8:23)
- 바울 시대 고대 로마 교회의 성도. 빌로로고와 율리아의 아들이다. (롬 16:15)
- 고대 로마에서 중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형틀. 예수님이 여기에서 돌아가셨다. (롬 6:6)
- 신의 형상을 묘사한 형상.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모두 이것으로 본다. (롬 2:22)
- 화가 날 정도로 분하도록, 또는 그렇게 만드는 상황을 말한다. (롬 10:19)
- 눅거나 넘어져 있던 것을 일으킴. 때로 비유적으로 어떤 것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롬 14:4)

여전도회
연합예배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여전도회 9월 연합예배가 10일(수) 새로 리모델링된 중예배실에서 230여명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석을 하여 배윤환 목사의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김지민 목사의 콩고 선교보고로 진행이 되었다. 여전도회 예배 모습과 여전도회 단체사진을 위해 월례회 후에 촬영을 하였다.

230여명 정도의 인원 단체 사진은 중예배실은 불가능 할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하고 계속 성령님께 간구 하였다. 오전 10시 30분 예배가 진행 중에 위급상황의 발생이 되었다. 소식당·대식당에 식당 서빙테이블을 배치해야 하는데 대식당에만 배치했으니 이 많은 인원의 배식 시간은 길어지고. 힘든 상황이 눈에 훤히 보였다. 찬양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계속 간구 중에 지혜를 주셨다. 제일 많이 참석한 제1여전도회 회원 70명이 먼저 사진 촬영 후 식당으로 가고 제2여전도회 촬영 후 모든 여전도회원과 단상에서 함께 촬영을 한 후에 제2 여전도회는 식당으로 가고 제 3,4,5,6, 차례대로 단체 사진 촬영 후 식당으로 가서 혼잡할 뻔 했던 식당 배식은 여유롭게 순차적으로 음식 배식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었다. 짧은 30분 정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식당과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너무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였다. 제1여전도회와는 단체 사진 촬영 못한 것에 대하여는 무척 죄송하였으나 9월 월례회를 마치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원인숙 권사 / 연합 여전도회회장



교회일정

- 9/20(토) 5교구 새벽특송
9/27(토) 6교구 새벽특송
10/1(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 : 5교구
10/4(토) 7교구 새벽특송

알립니다

-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윤바나바) : 9/23(화) ~ 9/30(화)
- 2025 수능기도묵상집(50일) 안내**
배부: 9/14(주일)
장소: 교회 출입구 및 사무실
문의: 방윤주 목사(010.3076.3021)
- 후문 출차 안내**
시간: 오전 10:00 ~ 오후 1:00
문의: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 후문은 출차만 가능합니다. 주차안내부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집합니다

- 주방봉사자**
시간: 8:00 ~ 10:00 (1부 국수팀)
12:00 ~ 2:00 (마무리팀)
문의: 임익수 장로(010.3758.6162)
- 아기정원 32기 모집**
기간: 10/18 ~ 11/8(매주 토) 오전 10:00~12:00
대상: 15 ~ 40개월 영유아 및 양육자
모집: 9/14(주일)까지 포스터QR 신청
- 호스피스 교육생(온라인) 모집**
기간: 9/18(목) ~ 11/27(목)
회비: 5만원
문의: 배윤환 목사(010.3138.3262)
- 임마누엘(4부) 찬양대원 모집**
문의: 이성규 안수집사(010.5503.5512)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 기타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32기
아기정원
모집안내

모집대상 15~40개월 아기와 엄마(보호자)함께

모집기간 8.24~9.14(주일), 링크를 통한 구글신청서 제출

외 비 2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210-910275-01907(신비명) 입금자명: 장화영 딸 독공자 + 이름 ex) 아기○○○)

교육주제 "나는 예수님이 좋아!"

교육일정 10.18~11.8(토) 4주간 오전 10:00~12:00 신촌2채육원유아부실

문의 이은솔목사(010-4094-8291)



구글신청링크

파더와이즈 7기

지혜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성경적 원리로
튼튼하게 세워주는
가정사역원 프로그램

10.17~11.28 (매주 금, 7주)

오후 7:30~9:00

4층 대회의실

문의 |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대상 및 모집인원

주님의교회 모든 남자 성도 20명

참가회비

3만원(교재 및 교육자료)

주제

지혜로운 아버지 Wisdom for Fathers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1주	10.17	입학식, 환영과 사랑의 인사, 65기도
2주	10.24	지혜에 대한 탐구
3주	10.31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 세우기
4주	11.7	하나님과 남성의 관계
5주	11.14	남편과 아내의 관계
6주	11.21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7주	11.28	아버지와 세상과의 관계



신청QR

주님의교회

십자말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